

핀란드의 우정실험

이 종 탁*

핀란드는 언제부터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전범(典範) 국가가 돼 있다. 핀란드의 아름다운 숲과 호수 때문이 아니다. 사우나의 나라, 노키아의 나라여서도 아니다. 사회복지와 교육복지를 동시에 이뤄낸 교육 개혁의 성공국가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고, 성적표에 등수를 매기지 않는데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어떻게 부동의 1위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비법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전문가들이 이에 관해 내놓은 연구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것 저것 읽어보아도 그대 바로 이거야, 우리도 이 대로 하면 되겠다 싶은, 손에 잡히는 비법은 안 보인다. 어쩌면 없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다. 핀란드는 남한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530만 명의 작은 나라인데다 우리와 걸어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말이다. 그래도 참고할 만한 내용은 있다. 그 중 39인의 교육 전문가가 현지를 다녀와 펴낸 책 '핀란드 교육 혁명'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다. 핀란드 엄마들은 추운 겨울에도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밖에서 잠을 재운다는 사실이다. 생후 두 달된 아기를 밖에서 재우기 시작해 두 살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면 예외없이 밖에서 재운다. 그것도 몇몇 성깔 있는 집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핀란드 국민이면 예외없이 100% 그렇게 한다는

*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jtlee@kyunghyang.com

게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핀란드 풍습이다. 아기를 밖에서 재우면 아기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 머 리도 좋아지고 참을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병실에 누워있는 산모에게 핀란드 간호 사가 해주는 첫번째 조언이 이 것이란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발상이다. 아동학대도 보통 학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추위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늘날 모두가 공부 잘하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니 그저 혀를 내두르는 수 밖에 없다.

이런 핀란드가 요즘 우정부문에서 기상천외한 역발상의 실험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실험은 세계 각국의 우정당국이 역점을 두어 시행하는 서비스와 정 반대의 개념에서 출 발한다. 대부분의 우정당국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 전달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보내는 사람이 전자메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 그 내용을 종이편 지에 담아 받는 이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보내는 이는 전자메일의 신속함, 편 리함을 이용할 수 있고, 받는 이는 종이편지의 정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우리 우정사업본부 에서 종전에는 우체국 전자우편, 요즘엔 e그린우편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바로 그 서비스다.

그런데 핀란드 우정 이텔라는 지난 4월 12일부터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 고 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객에게 가는 종이편지를 우체국에서 개봉해 그 내용을 스캔한 다음 PDF 파일로 전환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터넷이란 넷포스티(NetPosti), 우 리로 치면 포스트넷과 같은 우체국 사이트를 말한다. 종이편지가 PDF 파일로 변환돼 넷포스티 에 올라가면 수신인에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하고 알려줘 넷 포스티에 접속, 열어보도록 하는 방식이다.

편지를 스캔한다는 것은 편지 내용이 고스란히 우정당국에 노출된다는 얘기다. 처녀총각이 주 고받는 연애편지도,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는 비밀편지도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국가 디지털 정보로 바뀌는 셈이다. 나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당국이 언제든 꺼내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그다지 하지 않는 것 같다. 우정당국이 안틸라라는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 참가자를 모집했을 때 개인 120 가구와 기업 20곳이 “내 편지를 스캔

해도 좋다”며 신청했다. 실험이 시작된지 5개월이 된 9월 현재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텔라의 발표다.

이 실험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텔라는 연말쯤 다른 하나의 실험을 더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실험참여가구가 접속하는 넷포스티에 신문 PDF 파일을 제공해 종이 신문 대신 전자신문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신문 PDF 파일은 이미 여러나라에 보편화돼 있으나 이번 실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신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핀란드 우정은 편지 한통을 부쳤을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일찌감치 계산해낸 놀라운 전력이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편지 한통을 부치면 수신자에 배달되기까지 평균 36g의 탄소가 배출되며, 이는 승용차 한 대가 200m를 운행할 때 내뿜는 배출량과 같다는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상상도 못할 서비스이고 엄두도 내기 힘든 계산법이지만, 핀란드에선 도전적·창의적 실험정신이 있어 가능한 것 같다. 이번 편지 스캔 서비스를 통해 미래시대 우편서비스의 적합모형을 찾아보겠다는 핀란드 우정의 실험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